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1월 9일(주일) 제1376호



선교, 온누리가 함께합니다!

2022년 선교헌금 작성 ... '열방에 소금과 빛으로'
선교헌금작성서, 온라인작성서, 전화로 참여

1월 8일과 9일에도 2022년 선교헌금 작정을 한다. 온누리가 다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것으로 '열방에 소금과 빛'이 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매년 온누리교회는 새해 첫 주와 둘째 주에 선교헌금을 봉헌한다. 올해는 지난 1월 1~2일, 8~9일 진행된다. 선교헌금 작성과 더불어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재능기부도 동참할 수 있다.

올해는 다음세대들의 선교 동참이 돋보인다. 심솔우 학생(10살, 도곡 꿈땅)은 생애 첫 선교헌금 작정을 했다. 그는 "엄마가 선교가 무엇이고,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셨다"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저도 선교에 힘을 보탬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심재후 학생(15살, 부천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도 선교헌금 작성에 동참했다. 그는 "어려운 상

황에서도 힘든 이웃들을 도와주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존경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온누리 선교사들의 감사 인사도 전해지고 있다. 김바나바 선교사(터키)는 "제가 선교현장에 있을 수 있는 힘은 온누리교회 성도님"이라며 "새해에도 선교사들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박겸손 선교사(레바논)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선교헌금으로 시리아 난민 130여 가정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난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관련기사 4면>.

2022년 선교헌금 작성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1월 8일과 9일 온누리교회

예배에서는 나눠주는 '선교헌금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영상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더보기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작성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화로도 선교헌금을 작성할 수 있다.

한편 1월 8일부터 온라인 선교플랫폼 '온-커넥트'가 재단장한다. 2000선교본부는 "온라인 선교플랫폼 온-커넥트를 시범운영 하면서 파악한 문제들을 보완해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선교플랫폼 '온-커넥트'는 의료, 통역, 숙소, 차량 지원, 디자인, 설계, 교재 제작 등 다양한 선교사들의 필요와 성도들의 재능이 만나는 장(場)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온라인 선교플랫폼 '온-커넥트'에 가입해서 선교사들과 동역할 수 있다. 문의: 02-3213-361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2주 남았다

1월 21일까지 매일 오전 6시 모든 캠퍼스

지난해 12월 13일 시작된 2021-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이제 2주 남았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예배당 예배, 온누

리교회 유튜브 채널, CGNTV로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은 오전 5시 30분, CGNTV는 6시부터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실황을 생중계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성도들의 참여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유튜브 채널 영상 조회수가 회당 2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홍성호 장로(성북공동체)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새로운 소망과 활력,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했고, 이성미 집사(관악금천공동체)는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했다<관련기사 6면>.

/ 정현주 기자

말씀을 읽다, 말씀에 빠지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12월 31일까지

조수정 성도(S브릿지공동체)는 요즘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말씀 읽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새벽예배를 드리고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일독은 혼자 하면 잘 안 되는데, 공동체와 함께해서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자극을 주고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서 꼭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2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가 시작됐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성경읽기표를 따라 성경 전체를 일독하는 과정이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서로에게 동기부여와 도전을 줄 수도 있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는 이렇게 하면 된다. 매일 오전 교회에서 각 공동체 총무들에게 성경읽기 링크를 보내준다. 총무들은 공동체 순장들에게 링크를 전달하고, 순장은 순 단체채팅방에 그 내용을 공유하고 성경 읽기를 독려하면 된다. 나눔도 하면 좋다. 그날 분량의 말씀을 읽고 순 단체채팅방에 감동한 구절이나 짧은 은혜나눔 글 혹은 "아멘", "읽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올리면 된다. 성경읽기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김은미 순장(서대문공동체)은 "오랜만에 하용조 목사의 목소리로 성경을 듣게 돼서 반가웠다"고 했고, 남수경 성도(온라인 커뮤니티 플렉 리더)는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관련기사 5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합시다!"

4월 17일까지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

성도들의 헌혈로 혈액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2(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2)가 4월 17일(부활절)까지 이어진다. 생명나눔의 기적에는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38개 교회 및 기독교 단체가 참여한다. 지난해 생명나눔의 기적부터 현재까지 한국 교회 성도 11,930명이 동참했다(1월 5일 기준).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2에는 현재까지 성도 633명이 헌혈을 시도했고, 443명이 완료했다.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 1천여만 원도 모였다.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2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에서 헌혈하는 경우, 헌혈기념품을 받는 대신 기부권을 구매하면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 또는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전송하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에 게시되고, 이재훈 담임목사의 저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2: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보내준다<관련기사 5면>.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신년특집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

② 하나님의 기관 ‘온누리복지재단’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이웃을 위해”

송영범 장로가 들려주는 온누리복지재단의 사명과 존재 이유

2022년 온누리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표어로 내걸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본지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누리 사람들, 기관, 사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의 기관 ‘온누리복지재단’이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사회취약계층(장애인, 노숙인), 1인 가구부터 다문화가정까지 모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총체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이웃을 섬기기 위해 16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 송영범 장로와의 일문일답.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고, 사회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미래 방향성과 목적성을 잃어버리기 쉽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해서 고립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자신이 처한 곳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2022년을 아름답게 수놓기를 기도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이 곧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약자, 돌봄이 꼭 필요한 이웃들을 누구보다 정성껏 섬기고 있는 온누리복지재단 기관들을 소개해주세요.

“온누리복지재단은 7개 분야 1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70억 정도, 직원은 370명에 이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비장애인부터 장애인까지, 1인가구부터 다문화 가정까지 모든 대상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은 ‘온누리요양센터’, ‘용산데이케어센터’,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센터’,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서초구립노티나무 쉼터’가 있습니다. 중장년 시설은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50세~64세)을 지원하는 ‘서초50+센터’가 있고, 취약계층 시설은 쪽방촌 주민과 노숙자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변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소망의집(장애인 그룹홈)’,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시설은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꿈의집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온누리복지재단이 가정 분야까지 지경을 넓혔습니다. 지역주민 가정과 다문화 가정, 1인 가구 지원시설인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를 신규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



온누리복지재단 기관장들과 함께.

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온누리복지재단이 쓰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이 16개나 된다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기관이 많은 만큼 은혜와 열매도 풍성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시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말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웃음). 대표적으로 온누리요양센터의 철저한 방역을 꼽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전파로 인해 전국의 많은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환자와 의료진을 통째로 격리하는 조치)되거나 많은 노인 환자들이 사망했는데 감사하게도 온누리요양센터에서는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철저하고 엄중하게 방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면 복지서비스가 어려워지면서 온누리복지재단 사회복지사들이 비대면(전화, 문자메시지)으로 독거노인들과 취약계층들을 더욱 촘촘하고 철저히 돌봤습니다. 한번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 연락이 안 났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직원이 너무 걱정해서 그 할아버지 집 문을 뜯고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옮긴 덕분에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진심과 전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온누리복지재단 직원들 덕분에 취약계층 이웃들이 큰 어려움 없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학생이 있었는데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지내면서 1년 만에 꿈과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비전과 꿈이 생기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번에 동남보건대 치기공과에 합격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하사관으로 입대했습니다.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고, 쉼을 얻고, 비전과 꿈을 찾아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가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났는지 어떤 분이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기관, 신규 수탁까지 온누리복지재단이 할 일이 참 많아 보입니다. 새해 세상의 소금과 빛을 꿈꾸는 온누리복지재단의 비전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온누리복지재단의 존재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이웃을 위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온누리복지재단의 존재 목적이자 설립이유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누리교회 목회적 방향과 온누리복지재단의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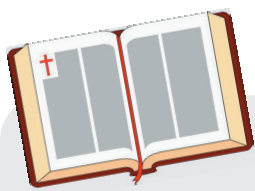
교회의 목회적 방향을 온누리복지재단도 함께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를 온누리복지재단이 수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이 가정 분야에도 진출한 만큼 가정을 살리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이끄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학사업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00선교본부와 협업해서 기업의 후원금을 후원받아 그 기금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온누리복지재단 장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온누리복지재단 장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확장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복지 기금이나 공익사업기금으로 책정해놓았습니다. 그 기금을 온누리복지재단에 후원하도록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고, 밝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장학지원사업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섬기기 시작할 때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고후 4:5)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누리복지재단은 더욱 철저하게 투명하고, 더욱 정직하고, 더욱 건전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온누리복지재단의 역할이자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녹아지고, 더 스며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누리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 가족 370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온누리복지재단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물질기부, 재정기부, 재능기부 등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모든 인생에는 피할 수 없이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고, 국민이 국가에 가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 종사자가 고용계약에 따르는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영적 의무가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세 종류 사 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의무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책임하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의무를 어쩔 수 없 이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감당하 기에 마음에 늘 불평이 가득합니다. 원망과 쓴 뿌리, 상처가 가득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자신의 의무를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의무, 국 민의 의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섬김과 나눔이 기쁨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많은 의무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무 를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짐을 지우 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의 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가 기쁨이 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 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듀티(duty)’가 ‘딜라이트(delight)’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 획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쉽게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허락하지 않습 니다. 특히 고난을 만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의무가 짐이 되고, 의 무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의무감으로는 고 난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의무감으로만 일하 는 사람은 억울한 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늘 뒤로 물러서게 되고, 불평으로 쓰러집니다.

감당하기 힘든 의무가 기쁨으로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쁨은 그에게 좋은 일, 그가 원하는 일, 형통의 환경에서 경 험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의무 가 기쁨으로 변하는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 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많은 시 간 고난을 경험했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무 감이었다면 바울은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없었

을 것입니다. 복음전파의 의무가 기쁨이 되었 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일 이었고, 하고 싶은 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 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그 는 매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 었습니다. 누구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습니 다. 최악의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무가 기쁨으 로 변화된 것은 자신의 능력을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 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 라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참된 교회 모습이자 성도의 모습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 니다”(12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이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기뻐하 고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 졌지만, 자신이 갇혀 있는 매임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 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우 리 일상의 큰 장애물이요, 고난입니다. 그러 나 하나님은 그 재난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대재앙 이나 대재난, 혹은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 이 후 영적인 부흥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대 재앙과 대재난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높 아진 교만,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간 들의 완악한 마음이 자초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쟁을 만들었고, 재앙을 만들었 고, 재난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 고,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로 삼 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재앙 이후 하나님이 대한민국 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 놀라운 영적 대부흥의 전초전으로 하나님이 팬데믹을 사용하고 계시다’ 라고 믿어야 합니 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선교에도 큰 장애물입 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을 통하여 복음의 진 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 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역사를 이 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닫히

고, 매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복음 의 역사를 이뤄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원하 지 않는 모습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 이 의무나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 다. 온누리교회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의무나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참된 교회 모습이자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소식에 귀 기 울이기보다 그 모습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메시지를 듣기보다 과연 성도들이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 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귀 기울 이기보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 들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사람들이 왜 부활 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 오는 성도들의 모습에 놀람과 감격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 든 일이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교회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매임을 통해 복음의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세 가지 모 습으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음을 보며 기 뻐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매임을 통해 복음이 로마의 친 위대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진 보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 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 명히 드러나게 돼”(13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 니다. 그때 그가 실라와 함께 기도하며 찬미 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놀라 워하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간수 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 어났습니다. 그러나 로마 감옥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굳게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 만, 굳게 닫힌 감옥 문을 통해서 로마의 친위 대와 주변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 회가 주어졌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곳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 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상황과 대화를 하 면서 바울이 불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감옥 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 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친 위대와 주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 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이루시는 복음의 진보였기에 기뻐할 수 있 었습니다.

많은 형제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기쁨

둘째,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많은 형제가 두 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 나 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14절).

자유롭게 사는 우리는 매임을 통해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 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전파를 가로 막는 세력관 속에 살아가는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압과 억압 속에 있는 환경에서 도리어 매임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능력있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 히 공산주의 체제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동유럽에서 그리 스도인들을 구금하고, 고문하고, 처형했을 때 교회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억압 은 복음의 문을 닫지 못하고 도리어 권력의 문이 닫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쿠바의 카스 트로 독재정권이 교회를 짓밟으려고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1994년 통계로 감리교가 6,000명 미만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성장했습 니다. 1930~40년대 나치 정권의 왜곡된 철학 과 악에 맞서 싸웠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 다. 본 회퍼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복음전파를 막으려고 교회를 금지하고, 성경 을 다시 쓰려고 하고, 교회들을 억압하고 있 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매이 면 매일수록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더 능력있게 나타나는 결과를 빚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시대 모든 선교사가 추방되었고, 중국 선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지 만, 수많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중국이 복음화 되고 있는 것처럼,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 를 문을 닫게 하는 핍박이 결코 복음전파의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수많은 교회 들이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14면에 계속〉

2022년 선교헌금작정

“성도님들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끝까지 선교지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지금도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874명이 78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정성껏 돕고 있다. 선교사 874명이 써내려가는 Acts29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여기에 한 가지 동력이 더 있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끝까지 선교지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은 막다른 길에 서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위에서부터 네팔, 터키, 레바논).

네팔 전역에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걸린 아동이 약 3천여 명 있다. HIV는 점진적으로 특정 백혈구를 파괴하고,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다. 네팔 정부와 국제 NGO 단체들이 일찍이 심각성을 깨닫고 HIV 감염 아동을 지원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덕분에 네팔 HIV 감염 아동들이 매일 필요한 약물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식사와 보건교육, 건강관리 등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김일환 선교사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사역 단체 ‘씨빙프렌즈’ 본부를 두고 견전뽕, 더덜두라, 바이띠리 지역에서 HIV 감염 아동 65명을

섬기고 있다.

“HIV 감염 아동들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약을 잘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HIV 감염 아동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HIV에 걸린 이유는 감염된 어머니에게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죽거나 이혼한 가정도 있어서 가정에서 돌봄이 불가능한 아동도 많습니다. 가정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을 ‘홈베이스 케어’라고 부릅니다.”

씨빙프렌즈는 매일 30달러를 아이들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다. 그 지원금은 아이들의 교육, 기초보건, 식생활에 사용된다. 김일환 선교사

와 씨빙프렌즈 사역자들이 HIV 감염 아동들과 부모가 지원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가정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교육도 한다.

네팔 극서부 바이띠리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수미파 자매는 9년 전 김일환 선교사를 만났다. 김일환 선교사를 만나기 전에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가정에서 생활했다. 아버지는 HIV에 걸려 죽고, 어머니는 나무를 해서 팔았는데 하루에 1달러를 벌기도 힘들었다. 김일환 선교사는 수미파 자매와 남동생과 결연하고 매월 50달러를 지원했다. 그 덕분에 수미파와 그 가족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미파 자매는 경찰관이 되어서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다. 누나가 건강하게 사회생활 하는 모습을 본 수미파 자매의 남동생은 IT 전문가를 꿈꾸고 있다.

“수미파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결실이 참 아름답습니다. 수미파의 작은 성공이 HIV 감염 아동들과 지역 아동들에게 큰 도전과 자극이 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수미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팔 HIV 감염 아동 65명과 그 가정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앞으로도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십시오.”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예수’

100명 중 1명.

유엔난민기구(UNHCR)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인구 100명 중 1명이 난민이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58명이 15개국에서 난민을 섬기고 있다.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일까. 집일까? 음식일까? 아니다. 예수다. 김바나바 선교사는 터키에서 이란과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터키에서 생활하는 이란과 아프간 난민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들에게 터키는 경유지입니다. 그런데 1~2년이면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년, 10년이 지나도 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도 없고, 터키인도 아니고, 이란인도 아니고, 아프간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절망에 빠져 삽니다.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김바나바 선교사는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북쪽, 서쪽, 남쪽으로 6시간 이상씩 떨어진 지역에서 생활하는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 기존 선교지에서 추방당하면서 난민들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제자 양육을 한다.

“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면 헌금을 훔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터키 북부 트라프존에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에스더 자매(가명)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헌금을 훔쳤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 자매와 남편, 딸 둘인 가정인데 다른 난민들처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고, 부부도 불법으로 일하면서 근근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 난민들이 하잡을 벗고,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까지는 말로 하기 어려운 시간과 기도, 정성이 필요하다.

“난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제자 양육하는 일이 정말 힘듭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난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실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동역자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난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시리아 국경을 맞댄 레바논 베카계곡에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난민들이 있다. 박경손 선교사는 그곳에서 시리아 난민 130여 가정을 섬기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NGO 단체들이 철수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원이 부족한 지역인데 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곳이 농경 지역이라 농사지으면서 견디고 있는데 점차 상황이 안 좋아져서 걱정입니다.”

박경손 선교사는 날마다 난민들의 텐트를 방문해서 함께 울고 웃는 것이 사역이다.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난민들이 박경손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읽고, 예수를 주체로 토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은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찾아오는 손님이 선교사밖에 없어서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난민 가정과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일해도 여자는 500원, 남자는 2000원 법니다. 달걀 한판 사려면 3일을 일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들의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후원해주신 헌금으로 난민 130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과 관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올해도 모두 함께 헌혈!

이윤철 성도, 박상호 형제의 두 번째 생명 나눔



11,930명.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해서 이웃들에게 피를 나눠준 성도들의 숫자다(1월 5일 기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피를 나눔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다. 올해 생명나눔의 기적은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는다. 어린 생명을 구하고자 더 많은 성도들이 헌혈하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성도 633명이 헌혈을 시도했고, 443명이 완료했다. 또 소아암 어린이들의 수술비 모금액이 1천만 원 가까이 모였다(1월 5일 기준 9,056,122원). 이 귀한 일에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발 벗고



헌혈로 생명을 나누기 위해 두 번째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한 이윤철 성도(OEM공동체, 사진 오른쪽)와 박상호 형제(허브대학부, 사진 왼쪽).

나섰다. 벌써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계정에 헌혈하고 나눈 간증이 가득하다. 건강이 회복되어서 헌혈할 수 있게 된 성도, 성탄절에 헌혈소에 달려간 성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한 성도까지 귀한 간증이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고 있다.

이윤철 성도(OEM공동체)와 박상호 형제(허브대학부)는 두 번째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했다. 이윤철 성도는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 소식이 무척 반가웠다.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을 또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헌혈할 때마다 아내가 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서 하는 헌혈은 흔쾌히 허락해주거든요. 지난해에도 생명나눔의 기적 덕분에 아내의 걱정이 풀렸(?)을 피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올해도 동참해서 좋았습니다(웃음).”

이윤철 성도는 헌혈을 계속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더 사랑받는 남편, 더 존경받는 아빠가 됐다.

“헌혈하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해볼 수도 있고요. 전에 헌혈할 때 안 좋은 수치들이 종종 나와서 건강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부터 8kg을 감량했습니다.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저와 가정을 돌보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족들과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정말 기뻐하고, 아들은 ‘나도 어른이 되면 아빠처럼 헌혈 열심히 할래!’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의 작은 헌신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윤철 성도는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이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이야말로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이 온누리교회의 연례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육신을 살리는 일에 앞장선다면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호 형제도 두 번째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했다. 사실 박상호 형제에게 헌혈은 당연한 일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게 헌혈은 당연한 일입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계속 참가할 수 있었던 것도 헌혈이 꾸준히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상호 형제는 누구보다 헌혈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당장 헌혈을 하러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헌혈은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석 달에 한번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헌혈이 보험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를 돕는다면 내가 그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박상호 형제는 생명나눔의 기적은 선택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헌혈은 또 다른 형태의 이웃사랑입니다. 또 하나의 사회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이웃들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주신 피로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이웃을 살릴 수 있는데 피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상 문제나 다른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서는 강요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2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공동체와 함께해서 해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남수경 리더와 순원들의 말씀 읽기

새해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를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표를 따라 1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1독(讀)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남수경 리더(순장)네 플렉(순)도 말씀 읽는 기쁨과 행복에 흠뻑 젖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대부분 개인 사정으로 교회와 공동체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던 성도들이다. 교회나 공동체 활

동에 참가하기가 어려웠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가 참가한 90일의 기적 성경일독도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새해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광고를 듣고 순원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지난해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과 새해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순원들을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순원들이 얼마나 즐겁게 말씀을 읽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들 자율적으로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통독은 누가 이끌어주거나 함께하지 않으면 완주하기 힘들데 올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

어서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남수경 리더네 플렉 단체채팅방에는 매일 딸기 이모티콘이 가득하다. 그날 주어진 말씀을 다 읽었다는 신호(표시)다.

“매일 아침 성경읽기 링크를 순원들에게 공유해주고 저부터 딸기 이모티콘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을 안 읽으면 순원들도 안 읽을까 봐 조금이라도 일찍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량을 빼먹은 그다음 날에는 전날 분량까지 읽고 딸기 이모티콘을 올립니다.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하나가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수경 리더가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도록 도와주는 교회에 인사하고 싶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또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를 더 열심히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박동균, 이승아 집사네가 다 함께 새벽기도회 나오는 이유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는 박동균, 이승아, 박지혜, 박은혜 가족.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벌써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매일 새벽 6시 기도의 제단 앞으로 나와 나라와 민족, 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온 가족이 참석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가족이 있다. 그 주인공은 평택온누리교회 박동균(부), 이승아 집사(모), 박지혜(중1), 박은혜(만 6세) 가족이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난해부터 훈련 시키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박동균, 이승아 집사네는 2018년 한국으로 파견근무를 왔다.

“남편이 평택 미군부대에서 근무하고, 막내가 그 안에 있는 유치원을 다닙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9월에 학기가 시작해서 막내가 지난해 9월부터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아침 7시 30분까지 유치원에 가야 해서 적어

도 6시 30분에는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막내가 큰 어려움 없이 따라오는 것은 그때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동균, 이승아 집사네가 한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온 가족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대로 여행을 많이 다녔다면 교회를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행을 할 수 없게 됐고, 그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아이들과 함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엄마 아빠랑 새벽기도회에 간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못 일어나거나 피를 부릴 때도 있다.

“코로나19라는 전쟁 같은 시간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게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

거나 피를 부리는 아이들에게 억박지르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너희를 잠시 맡아 키우는 것일 뿐’이라며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고 독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기다리신다’고 말해주면 아이들이 잘 따라옵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아 집사가 이 시대 부모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큰애 학교에서 동성애 세계관이 자리 잡는 것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않는 아이가 우리 큰애를 포함해서 2명밖에 없습니다. 창조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쌀 없이는 살아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온 가족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1-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도제목과 은혜

(서산온누리교회 바울1순)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떠나 자기만족과 영광에 매이지 않고 선한 동기화 행실로 그리스도인의 은밀함을 취득하는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 정은태 순장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 문재현 성도

“제 삶에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 김향미 집사

“오직 믿음 안에 바로 보는 눈과 바르게 듣는 귀를 주옵소서.”
/ 류조일 집사

“입술로 범죄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중인격적인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 조성현 전도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신앙인답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 강수형 집사

(관악금천공동체 믿음1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있을 때 그분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높아진 마음과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 감혜진 집사

“의분과 지식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회개로 세상에 주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2022년 되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 정재호 집사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인해 제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 이해옥 권사

(동작공동체 마가2순, 소망5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탁하는 마음 허락해서 내가 주안에 주가 내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합니다.”
/ 이종태 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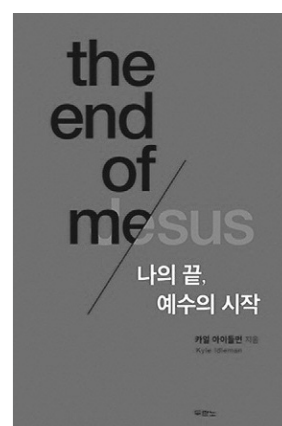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 보는 참 믿음의 사람되게 하옵소서.”
/ 이종택 집사

“아벨적 공동체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에서 실현될 공의도, 사람의 논변 탐색 정의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군말 많은 저임을 아시지요? 당신의 주권으로 저에게 군말 없이 순종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 이동연 권사

“나그네를 생각하는 마음, 외국인까지는 아닐지라도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을 돌아볼 때 다듬어지지 않은 태도로 다가가지 않았나 씁습니다. 상대의 필요는 알았지만, 마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민하던 어린 시절 상처가 되었을 일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영적 나그네의 삶에 찾아오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나그네 된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김지은 집사

새벽기도회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나의 ‘끝’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카일 아이들먼 저 | 두란노
| 13,000원

오늘 소개하는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의 제목에서 ‘끝’이라는 글자가 먼저 눈에 띈다. 왜 ‘끝(end)’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감사와 감격과 새 소망의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 같다. 육신의 삶을 사는 누구든지 상황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지막’, ‘끝’이라는 단어는 ‘희망’보다 ‘절망’을, ‘기쁨’보다 ‘슬픔’을 연상시키곤 한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끝’이 엄청난 반전의 시작임을 이야기한다. 바로 그것이 책의 목적이자 주제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저자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게 한다. 더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진정한 ‘나의 끝’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예수의 시작) 말한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깨어진 존재들”이라는 저자의 표현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깨어져서 텅 빈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빚으시고 당신의 영으로 채우셔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구속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믿음의 재도약을 위한 자양분 삼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온누리 공동체 성경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2022년 새해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한다.

/ 정현석 목사(고양은평공동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세상의 소금과 빛
Salt and Light of the World

◆ 12월 31일 금요일

빛은 여러분 안에

마태복음 5:14~16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40년 목회를 돌이켜 보면서 고백하는 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충한 종입니다.”,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이 세 가지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주의 종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영광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나는 빛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제 대답은 ‘어둠만 아니면 다행이겠다’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앞에서 어물쩍거리다가 그림자만 지우지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세상의 문화, 교회의 타락에 거룩한 의분을 품고 있었기에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분으로 젊은 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의분이 사라졌습니다. 그 분노가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역을 지속할 힘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역을 지속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 되신 십자가의 사랑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빛을 생각할 때 의분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분에 사로잡히게 되면 빛이 아니라 연기를 피웁니다. 의분으로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외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사랑을 잃고, 굉장히 냉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보다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창세 이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 그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유일한 사랑이고, 가장 높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샘솟을 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전달하는 달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전달하는 반사체입니다. 기름과 심지만 있어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불꽃이 달아야 비로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불꽃이 전해졌을 때 우리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내고,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에게 불꽃이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천국이 깃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새해, 회개의 기도 가운데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 1월 3일 월요일

기도의 자세

마태복음 6:5~6

박종길 목사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긍휼의 옷을 입게 해줍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성도의 호흡이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자세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낯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 어려움,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남을 의식하

는 기도, 남에게 인정 받으려고 하는 기도, 자기의 의에 도취된 기도, 이런 기도들을 외식(外飾),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쌓는 기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둘째,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해야 할 일이 생각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한 장소, 기도의 골방을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 내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눈물, 아픔, 상처, 고통, 수고,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고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은밀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도의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 1월 4일 화요일

기도의 내용

마태복음 6:7~8

이재훈 목사

죄는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사람들의 기도를 지적하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을 감동하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성실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말을 하여 담기도 전에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 드러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한다는 다른 종교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종교가 많습니다. 기도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합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말씀이 주어진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때로 기도가 신앙생활의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목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 열정, 간절보다 중요한 게 정직입니다. 많은 말보다 중요한 게 정직한 한마디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얻은 것은 감사하지만, 구하지 않고 받은 것은 감사를 모릅니다. 구해서 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은혜가 더 큼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 나 부모님의 능력으로 우연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영광스럽게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

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와는 다른 응답을 주시거나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십니다. 내가 구한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 구한 것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거절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임을 알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세상의 소금과 빛
Salt and Light of the World

◆ 1월 5일 수요일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9~13

이상준 목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범적인 기도문인 주 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내 영원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내 아버지가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에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미 거룩한데 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한

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종말의 완성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존자이십니다.

10절 상반절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에서 주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무질서와 다름, 죄악, 절망이 사라집니다. 평화와 사랑,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왕국의 환상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친히 통치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것이든, 역사를 향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만이 최고요, 최선이요, 최상인 것을 신뢰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11절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벌리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우리 영혼과 인생 위에 드리워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려면 나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과 절망과 안타까움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어두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씀에서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죄악의 파도를 넘어서는 사람으로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말씀은 많은 찬양에서 사용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결국 내 아버지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기도 주기도문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 1월 6일 목요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

마태복음 6:14~15

이재훈 목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동시에 우리도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포함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용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용서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용서하셨습니다. 값없는 용서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용서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용서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결단의 용서’와 ‘정서의 용서’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는 용서의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서의 용서까지 나아갔습니다. 먼저 달려가 아들을 품고 축복하는 용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용서는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등장하는 문제가 ‘화해’입

니다.

우리는 화해를 해야지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용서까지 요구하신다면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십자가의 용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화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태도를 보면 됩니다. 진정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에 대해 결단의 용서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진정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용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 대한 용서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이를 용서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못 박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십자가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의 고통은 죄 없고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만큼이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그 고통을 씻어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용서의 축복이 흘러가고, 우리의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고, 그 용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선한 사이클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1월 7일 금요일

슬픈 기색과 씻은 얼굴

마태복음 6:16~18

이기원 목사

금식이 믿음의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금식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이는 그날에 너희를 위해 너희를 정결케 하는 속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정결케 될 것이다”(레 16:30).

둘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은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되

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금식이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금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금식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목적에 맞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

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16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첫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이며, 경건한 행위(금식)를 했다는 것을 보상 받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행위를 보상하실 거라는 심리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금식의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

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17-18절).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말아라), 보상이나 인정,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식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굶주림의 제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한 적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주님과 동행’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요즘 진로와 비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과연 내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아서 그런지 미련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길과 비전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진로와 비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전을 받았나?” 혹은 “나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라는 큰 고민을 하게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비전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비전과 진로를 고민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정 직업군을 정하고,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한정 짓지 않으셨다. 성경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 등장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직업에 집중하기보다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삶의 비전은 주님과 동행임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고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왜 그 직업을 선택하려 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그 일의 대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만약 이 질문에 주님 없는 답을 한다면 제자리로 돌아가 주님과의 동행을 먼저 꿈꿀 수 있어야 한다.

영어 단어 비전(vision)의 본래 뜻은 ‘눈으로 보다’는 의미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 우

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주인된 삶이다. 어떤 직업을 찾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하셨다. 주님의 눈은 사람이 필요한 곳을 향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요 13:34~35).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새 계명을 주셨다. 나의 직업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사랑하면서 살아

라”에서 그치지 않으셨다.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다양한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직업과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한다. 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하실지를 고민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 갈 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이우람 목사
(Pole2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남성다움, 남편다움’에서 ‘성도다움, 예수 닮음’으로

‘남자답다’의 의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용인하는 차원에서 ‘남자답다’가 해석되기도 하고, 개인의 성장배경이나 가정의 분위기, 아버지의 모습, 성인 남성의 특정화된 모습을 보면서 ‘남자답다’는 의미가 각인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몇십 년 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남자답다’는 의미와 현재 이해하는 ‘남자답다’는 의미가 차이가 있다. ‘남자답다’의 인식은 남편다움, 남편다워야 한다는 의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에는 과묵하고, 독심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사회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몰입하는 모습, 가정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등이 남자다운 모습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또 당연히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됐다. 특히 남자에게 책임감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남성의 리더십 인식이 때때로 독단적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남자답다, 남편답다, 가정답다고 인식되고 어느 정도 용인되는 측면이 있었다. 큰소리치는 아버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 좋아하는 표현을 하면 버릇 나빠진다고 말하면서 엄하게 대하시는 아버지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어쩌면 남자답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닮든지, 싫은 모습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자신이

이해하고 경험했던 남자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생애과정을 남자들은 거치게 된다. 흔히 않지만 최근에도 여전히 과거의 남자답다는 인식을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남편들을 보는 경우가 있다.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허락보다 용서가 더 낫다’는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본다.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새롭게 남자답다, 남편답다는 인식의 재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가장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남자다움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인식되는 남자다움을 넘어, 예수님 닮은 모습을 추구하는 진정한 남자다움, 남편다움이 될 것이다(왕상 2:2 빌 2:5).

예수님은 남편에게 교회에 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지도력을 보이되,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전력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라고 하셨다(엡 5:25, 28). 자신의 주장과 뜻을 강요하기보다 아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성품과 삶과 말씀을 늘 묵상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살아내는 모습이 진정한 남자다움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자답다는 생각을 할 때 남성이 가장 억압하는 것이 ‘감정’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남자에게 정서적, 감정적으로 자신

에게 느껴지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권장되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동서양 공통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을 통제하고 표출하지 않는 것이 남자다운 모습 중 하나라고 암암리에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남자답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조금씩 표현해 보는 것이 오히려 남자다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감정과 내면의 필요에 민감할수록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풍성하게 된다. 억눌려 있었던 감정과 채워지지 않았던 내면의 갈증도 알아차리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자신의 심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최소한 자신의 감정에 대한 가치를, 자신이 추구하는 인지와 이성의 수준만큼 높게 인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감정의 인식과 표현에 있어서 남편에 비해서는 높고 복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민감하게 여기고 성장을 경험한다면, 부부 사이에 더욱 충만하게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연결감’을 추구하는 것이 부부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남편과 아내는 늘 가깝게 연결되어야 한다. 서로의 감정은 ‘서로가 연결되는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풍성한 감정 표현과 함께 성적인 정절을 지켜가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도 남자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성적인 유혹을 경험하게 된다. 결혼 이후에도 유혹의 상황이 늘 상존한다. 남자라면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한두 번 실수는 어쩔 수 없다면서 성적인 유혹에 있어서 이기적 관대함, 자기애적 관대함을 갖는 것이 남자다운 모습은 아닐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들은 많은 사회적 압력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여성들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뭘 그리 억제하면서 사니?”, “너무 고리타분하게 사는 것이 아니니?”, “너만 그렇게 정절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 바보같이” 등 남성 그룹의 압력을 쉽게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한다. 이러한 환경과 영향으로 인해서 ‘남자답다’는 인식이 오염이 되기도 한다. 오염된 ‘남자답다’의 인식은 ‘남편답다’의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자답다’의 참된 방향은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임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압력이 있더라도 말씀 가운데 남성다움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생각하는 남성다움, 남편다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돌아보면 좋겠다. 남성다움, 남편다움에서 ‘성도다움’, ‘예수 닮음’으로 나아가야겠다.

나눔: ‘남자답다, 남편답다’, ‘여자답다, 아내답다’의 의미를 고민해보고 부부가 함께 나눠주세요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종교를 사는가? 예수를 사는가?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스카이 제서니 저 | 두란노 | 8,000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도전과 유혹이 무엇일까? 아마도 복음과 신앙을 ‘종교화’하려는 도전이라 생각한다. 복음과 신앙은 영적이고 역동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익숙한 데 머무르려는 유혹을 분별하고 경계하지 못한다면 어느덧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소유한 삶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소개할 책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는 이름 그대로 ‘종교에 죽고 예수와 복음에 살게 하는 영적인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다.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그 현실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단순히 삶의 일부일 뿐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는 위치에 머물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종교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극히 일부분으로, 잠깐의 정서적인 만족 또는 기분전환을 위해 사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인 존재다. 종교는 인간의 근원적 한계인 ‘죽음’으로 대변되는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출발점에서 그것에 대한 각자의 대답을 제시한다.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말은 폴 틸리히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속에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이 오히려 ‘더 종교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종교는 신을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신을 끼어 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헌

신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 하나님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고 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종교의 긍정적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며 할 뿐이지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실을 깨달으면 종교에서 등을 돌린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집단 전체에 주입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폭력과 같은 무서운 방법이 동원된다.

저자가 한 가지 물음을 던진다. “종교를 없앤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모든 악행은 사실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제멋대로 믿고 싶어 하는 신앙의 소비주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은 더이상 하나님일 수 없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용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이를 ‘열심이 우상으로 변질된 사명주의’라고 지칭한다. 사명주의란 하나님이 시작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분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종교가 아닌 예수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오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분의 총명한 사랑으로 공급받고, 충분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게 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능력과 예수를 향한 열정이 변질되기 시작한 순간은 다름 아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다. 달리 말하면 예수로 살던 이들이 종교화된 기독교를 접하면서 예수가 아닌 종교로 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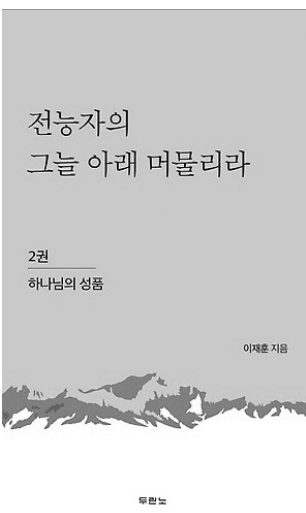
나는 과연 종교를 사는가? 아니면 예수를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려진다면 복음과 예수를 종교에 가두는 도전을 뛰어넘어야 한다. 교회라는 구조와 조직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살아 있어야 한다. 새해에도 신앙의 발걸음이 종교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살기를 소망한다.



정한효 목사
(하늘대학부)

두란노 신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2: 하나님의 성품〉
이재훈 저 | 두란노 | 10,000원

하고 정직한 마음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설명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하나 하나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싶은 성도, 상반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일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은 성도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랑이지만 진노하시며, 자유롭지만 약속에 매여 있고, 은밀히 숨어 있지만 늘 가까이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때로 전혀 다른 두 모습을 가진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하는 한 가지 모습만 바라보기도 한다. 우리의 경험에 비춰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의 비밀이 책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2: 하나님의 성품〉에 담겼다. 책은 총 9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진노하시는 분, 자유롭지만 약속에 매여 있는 분, 은밀히 숨어 있지만 늘 가까이 임재하시는 분, 항상 일하시지만 안식을 누리시는 분, 완전히 선하지만 택한 자를 연단하시는 분, 모든 것을 알지만 모든 것을 듣고자 하시는 분, 온 세상을 지었지만 아주 작은 나를 아시는 분, 모든 것을 섭리하지만 우연으로 찾아오시는 분, 결코 변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재훈 목사는 이 책에서 상반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일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모두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평생 환자를 돌보겠다는 그 약속대로



한원주 원장은 의사이자 독립운동가 한규상 선생의 자녀로 태어났다. 서울 여자의과대학에서 산부인과를 전공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1968년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는 그야말로 의료계의 뜨는 별이었다.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의사가 귀한 시절이라 대학병원에서 한원주 원장을 영입하려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원주 원장은 봉직의를 하지 않고 개업했다. 쏟아지는

환자들로 인해 큰 돈을 벌었다.

승승장구하기를 10년,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쳤다. 그녀의 나이 40세에 남편을 떠나보냈다. 예상하지 못한 사별을 경험한 한원주 원장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신앙 앞에 섰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한원주 원장에게 “너는 누구보다 부요하게 살아왔다.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정신 차려라”며 따끔한 충고를 하셨다고 한다. 한원주 원장은 오랜 기도 끝에 환자들의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함께 치유하겠다는 비전이 생겼다. 1979년부터 영세민과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의료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행복은 매일 천만 원씩 벌던 개인병원 시절과 비교할 수 없었다. 30여 년을 무료로 의료봉사를 했다. 2008년 82세에 의료선교의원에서 은퇴하고, 매그너스 요양병원 내과 과장이 되어서 매일 10여 명의 환자를 돌봤다. 2017년 JW중외제약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에서 수여하는 성천상을 받았다. 한원주 원장은 삼금 1억 원과 아버지께 받은 재산 모두를 사회에 환원했다. 평생 환자를 돌보겠다는 그 약속대로 2020년 9월 7일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그 다음날 쓰러졌다. 2020년 9월 30일 향년 94세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



시무식에 참석한 온누리교회와 12개 협력기관 임직원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및 12개 협력기관 시무식

온누리교회와 12개 협력기관이 지난 1월 4일(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시무식을 했다.

시무식에서 온누리교회 및 12개 협력기관 임직원들은 ‘스스로가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깨닫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2022년 온누리교회 및 12개 협력기관 시무식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 홍성호 장로 등 온누리교회 및 12개 협력기관(선교재단, 복지재단, CGNTV, NGO 더멋진세상, 두란노서원, 두란노해외선교회, 온누리M미션, Acts29비전빌리지,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에셀선교회, 경배와찬양) 임직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시무식은 홍성호 장로의 대표기도, 12개 협력기관의 새해 다짐 영

상상영,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산 위의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 온누리교회 및 12개 협력기관의 임직원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기독교 성가치관 학교 7기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세미나

크리스천 양육자와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기독교 성가치관을 세워주는 ‘기독교 성가치관 학교 7기’가 1월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독교 가정의 음란물 예방 교육 및 자녀의 영적 근력 키우기, 남녀창조 질서 이해하기, 기독교 가정의 생활 속 생명윤리 교육과 태아 사랑,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기독교 성교육의 방향성 등을 주제로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가 강의한다.

디지털세대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교육하기 원하는 교사, 학부모,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1월 11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65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 온누리교회: 온라인(www.onnuri.org), 목회행정실
문의: 02-3215-3265
-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 국세청 홈택스(15일부터), 전화
문의: 02-796-2243
-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 국세청 홈택스(15일부터), 전화
문의: 02-2271-2248

1월 화요성령집회 ‘세상의 소금과 빛’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1월 화요성령집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1월 화요성령집회 ‘세상의 소금과 빛’에서는 1월 4일 김승수 목사 ‘검

손으로 세워가는 삶’(요 1:19-28), 1월 11일 최성민 목사 ‘나눔으로 채워지는 삶’(고후 8:1-9), 1월 18일 김승수 목사 ‘사랑으로 증명하는 삶’(요일 2:1-11), 1월 25일 김윤식 목사 ‘복음으로 완성되는 삶’(벧전 2:1-10)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NGO 더멋진세상 필리핀 태풍 긴급구호

300가구 한 달치 식량 지원 및 복구작업

NGO 더멋진세상이 태풍 라이(최대 시속 260Km/h)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신다파스 지역에서 긴급구호를 실시했다. 필리핀은 지난해 12월 16일 중남부를 강타한 태풍 라이로 인해 370여 명의 사상자와 이주민 38만 명이 발생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신다파스 지역에서 300여 가구에 한 달치 식량(쌀, 면, 식용유, 건생선 등)을 전달하고, 마을과 마을 교회 보수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지에서 사역 중인 오진환 선교사는 “더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빙고 상담센터 수련상담사 모집

서빙고온누리교회 상담센터에서 수련상담사를 모집한다. 대상은 상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다. 2월 6일까지 지원서(서빙고 상담센터 양식 참조),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식사줄

업증명서, 임상경력증명서(레지던트 면접상담 100시간 이상, 인턴 면접상담 100시간 미만 지원가능), 자격증 사본(해당자)을 이메일(lsy1227ysl@hot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733-2998, 010-4215-3675

“QT하고 고구마 먹자!”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차세대자녀들이 방학 기간에 큐티하면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이 그것이다. 슬기로운 방학생활 겨울편은 ‘QT하고 고구마먹자’를 주제로 지난 1월 7일(금)부터 오는 2월 3일(목)까지 4주 동안 이어진다.

슬기로운 방학생활 겨울편 ‘QT하고 고구마먹자’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예수님의꿈아이, 꿈이자라는땅, 파워웨이브 소속 학생이 있는 2,500가정이 대상이다. 지난 슬기로운 방학생활 여름편 ‘QT하고 빙수먹자’에는 차세대 2,427가정(서빙고, 양재 기준)이 참여했다. 이번 슬기로

운 방학생활 겨울편 ‘QT하고 고구마먹자’에는 더 많은 차세대 가정 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슬기로운 방학생활 겨울편 ‘QT하고 고구마먹자’에서는 차세대 QT(예수님이랑나랑, 예수님이좋아요, 새벽나라) 교재와 말랑말랑톨레레게암송카드를 활용한다. 톨레레게암송카드 활용 방법은 암송카드 뒷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풍당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QT하고 고구마먹자’ 참여일수에 따라 차세대 학생들에게 고구마를 주제로 한 간식을 보내준다. 가족QT모임을 포함해서 총 24번의 QT를 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2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예수제자학교(JDS) 수강생 모집

5개 반(서빙고, 양재 주간 및 저녁, 수원 저녁) 개강

2022년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s School)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빙고 주간반 3월 3일(목), 저녁반 2월 26일(토), 양재 주간반 2월 24일(목), 저녁반 2월 26일(토), 수원 저녁반 3월 5일(토) 개강한다. 22주 동안 주간반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반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주간반은 여성만, 저녁반은 남녀 모두 수강할 수 있다.

예수제자학교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입학신청서’와 ‘교역자 추천서’를 작성해서 각 캠퍼스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서빙고 주간반 2월 18일, 서빙고 저녁반 2월 11일, 양재 주간반, 저녁반 2월 10일, 수원 저녁반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와 추천서 양식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예수제자학교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지상명령을 수행할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문의: 서빙고 주간 010-4173-3134, 서빙고 저녁 010-9182-6804

양재 주간 010-6427-5580, 양재 저녁 010-9019-4648

수원 저녁 010-7702-0419, 본부 02-3215-3625, 3220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 장기적인 헌혈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재욱

• 혈압이 높아 7개월여 만의 헌혈을 한 저와 혈압이 평상시 낮아 헌혈을 못했던 아내가 감사하게도 헌혈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주시고 사랑을 실천할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정진, 한아영

• 세상의 소금과 빛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2022년 되길 소망합니다. / 석진영

• O형 내 피가 모두에게 줄 수 있다니 감사! / 박영환

•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 저의 135번째 나눔이 이 땅에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기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 이진선

•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섬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한국

• 다시 생명나눔의 기적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과 2022년 첫 달을 나눔으로 시작해서 한 해가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합니다.아멘. / 이윤철

• 생명나눔 축제로 다시 헌혈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살 수 있는 내 삶의 귀한 가치를 느끼고 또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 오재홍

•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조금이나마 헌혈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양성민

•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윤석원

• 주의 사랑이 헌혈을 통해 온 누리에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 전신익

• 작년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이후 주기적인 헌혈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 조진우

•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 홍바울

유아세례 간증



/ 임정은 성도(가정사역공동체)

나는 주일날 교회만 출석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결혼 이후 어렵지 않게 임신과 출산을 했지만 아무 도움 없이 아들 셋을 키우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에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마음을 나눌 공동체를 만났다. 하루하루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컸다. 친한 자매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었다. 자매들과 나눔 중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제 나 이도 많아지는데 폐경 전에 아이 하나 더 가질까?”라는 말을 하곤 했다. 입술의 열매로 마흔이 되던 해 임신을 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8주 만에 유산했다. 일 년에 한 번씩 3년 동안 세 번 유산했다. 주님을 알아가던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생각과 원망이 차오르기도 했다. 문득 그동안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던 2020년 초, ‘누가 이 위험한 시기에 임신하고 출산을 하나’며 혀를 끌끌 차던 내게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귀한 딸을 보내주셨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아서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공동체 단체대화방에도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자연분만으로만 세 아들을 출산했던 내게 의사는 노산과 전치태반으로 과다 출혈이 걱정된다며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심한 입덧과 두드러기, 갑상선 질환, 임신성 당뇨 등을 판정받았다. 매일 다섯 번씩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혈당 수치를 재고, 식단조절을 했다. 눈물 나는 임신 기간을 보냈다. 예정일 전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다. 응급수술을 하기 위해서 결혼반지를 빼야 하는데 손가락이 부어서 빠지지 않았다. 119대원들이 두 시간 동안 반지를 잘라 주셨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자궁문이 다 열리면서 수술 대신 자연분만으로 딸을 출산했다. 자연분만은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출혈도 생각보다 적었고, 아기도 너무 건강하게 태어났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주님은 원망하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다.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나는 감사할 줄 몰랐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딸 사촌이를 양육하고자 한다. 사촌이가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크리스마스 블레싱 간증



/ 김태청 형제(SNS청년부)

우리 크리스마스 블레싱팀은 경남 고성 마암교회로 향했다. 마을 아이들에게 특별한 성탄절을 선물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여름,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전염세로 인해 비대면 사역을 했다. 그 과정에서 아쉬움이 정말 많았다. 우리도 답답하고, 아웃리치 가려던 교회 목사님도 답답해하셨다. 다행히 이번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대면으로 할 수 있었다. 직접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번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더욱 특별하고 좋았던 이유는 팀원들 간 호흡이 최고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동체에서 여러 사역을 하면서 적지 않게 리더십으로 섬겼다. 은혜와 감동, 보람이 있었지만, 그 과정까지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시행착오와 팀원 간 불화, 재정의 압박,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 등 어려웠던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마암교회 크리스마스 블레싱팀의 호흡은 착착 맞아떨어졌다. 그동안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우리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은혜가 공급해졌다.

선물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사실 특별한 게 없었다.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고, 영상보고 퀴즈 맞히고, 사영리 팔찌를 함께 만들면서 한 명씩 기도해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동을 하던지 한 명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영상도 집중해서 보았고, 퀴즈 맞히기도 최선을 다해 참가했다. 가장 은혜로운 순간은 사영리 팔찌를 만들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팀원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사영리 팔찌를 만들어 주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른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팀원들을 통해서 마암교회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날 우리와 함께 한 아이 중에서 60%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정말 깜짝 놀랐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데도 교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준 아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예수님이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물로 보내시고, 우리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 받았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박나오미 선교사(보스니아)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료 선교사팀이 산소발생기를 들고 저를 찾아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4주 뒤 검사 결과 항체가 형성되어 지금은 회복되었습니다. 힘들 때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큰 사랑과 기도,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복음화율이 낮은 이 나라에서 코로나19의 여파가 몹시 컸습니다. 몇몇 성도들은 소천했고, 그나마 소수가 모이던 작은 교회들도 성도 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교단들은 온라인 화상으로 연합세미나와 기도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부지역 초교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모임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은 인원이 적극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연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난민이나 다름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보호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는 저나 난민이나 같아 보이기 때문

입니다. 그래도 저는 큰 호강을 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테이너로 된 난민 숙소에서 떨면서 지내고 있는 더운 나라에서 온 난민들이 생각났습니다. 현지 교회 목사님과 상의해서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으로 침낭 60개와 양말 100켤레를 사서 개신교 난민 단체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새해 늘 해오던 어린이 선물 나눔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 대신 교단에서 식품박스를 받아 30여 가정에 나눠주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약성경을 나누고, 몇 가지 복음책자들도 권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관련 소식들이 복음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능동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은 달라야 하는데,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가 우리의 귀를 잡아당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행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춰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귀하게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학청년부 사랑애틀남 간증



/ 박영원 형제(여호수아청년부)

추운 겨울, 따스한 은혜를 나누다

팬데믹 시대가 일상이 된 지 벌써 2년이 되어간다. 이 와중에도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사랑애틀남이 이어지고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최근 5년 동안은 한 번도 거르지 않은 듯 하다.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30살에 처음 온누리교회에 와서 우여곡절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 이제야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하심을 깨닫는 중이다. 믿음생활 하면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중에서 사랑애틀남이 가장 값지다고 생각한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시간을 내어 사랑애틀남에 참가하게 된다.

교회에 다니며 여러 사역을 하면서 ‘과연 나의 만족과 구원을 위해서만 교회를 다닌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 나의 만족과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사랑애틀남 사역에 동참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

의 따뜻한 위로와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이다.

사랑애틀남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짧게나마 경험하게 해주는 듯하다. 이웃들을 위해 추운 겨울 쌀과 반찬거리를 나르면서 큰 기쁨을 느낀다. 거룩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가정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다. 그 순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열린 잠잠해져서 그 귀하고, 기쁘고, 값진 시간을 이어가기를 기도한다.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매년 사랑애틀남 사역에 참가하면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순화되는 것 같다. 사역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앞으로도 시간과 체력이 주어지는 한 추운 겨울 하나님의 은혜를 따뜻하게 전하는 사랑애틀남 사역에 계속 참가하고 싶다.

장로칼럼

세상의 소금과 빛 ‘케어하는 선교’



오명 장로
(두란노해외선교회)

올해도 온누리교회는 선교로 새해를 출발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 영상에서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인사가 전해졌다. 선교사

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해서 미안하며 후원과 기도로 함께하겠다는 성도들의 결심도 참 귀하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들의 동역이 선교현장에서 참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다.

2022년 온누리교회 표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나는 이 지면을 빌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설 수 있는 선교현장을 소개하고 싶다. 그 현장은 ‘선교사님들’이다.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를 ‘케어하는 선교’, ‘케어하는 선교사’라고 부르고 싶다. 온누리교회 선교사 케어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에서도 선교사 케어 담당 부서를 만들고, CMN이나 각 공동체에서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 케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배가 된다.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섬기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선교사 케어가 선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현직에서 은퇴할 때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선교사님들을 도우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대체의학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여러 도구와 기계가 있지만 내가 하는 대체의학의 핵심은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돕고, 뭉친 근육이 제자리로 가게 풀어주는 것이다. 여러 해 선교사님들을 ‘내

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도왔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성껏 치유해 드렸다.

지난해 A국에서 주방당한 선교사님 몇 분과 교제하며 그분들을 케어했다. 그분들이 지금 B시에 계시는데 A국 이주민들이 그곳에서 대거 생활하고 있다. 이미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했고, 지역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회가 중심인 공동체도 있었다.

이주민교회와 동역할 방법을 찾다가 대체의학이 생각났던 모양이다. 선교사님의 생각처럼 A국에서는 대체의학이 오래전부터 각광받고 있어서 관계를 맺는데 아주 좋은 도구였다. 척추 교정 전문가 엄재준 집사(중종로공동체), 이귀연 집사(방주교회)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주민교회 리더십들과 교제할 수 있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A국 선교회 주요 인사들이 모임에 나왔다. 그 덕분에 선교사님이 이주민교회 리더십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제가 현지에서 저분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는 직접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시니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추방당하고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단편적인 일화고, 은혜다. 성도들이 선교사들을 섬기고 케어한다는 것은 일회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 ‘뭐 이런 게 선교에 도움이 될까’ 싶은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신다. 2022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앞장서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권사칼럼

서로의 다른 인정하고 용납하기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여자들은 누구나 자기 외모에 조금씩은 열등의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보다 외모가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여자에게 남편이 눈길을 주면 초라함을 느끼고, ‘남편이 한눈을 판다’고 생각해서 속상해한다. 내 남편은

장로인데도 이렇게 말한다.

“여보,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는데 눈동자 안 돌아가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성인군자든지 아니면 남자로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일 테니. 그래도 옛날에는 온몸이 돌아갔는데 이제는 목도 아니고 눈동자만 돌아가는데 그만큼 성숙했다는 증거 아니겠어? 이제 곧 눈도 안 돌아갈 거요.”

남자는 본래 시각 지향적인 존재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외모다. 남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배우자 선택 조건은 대개 첫째 외모, 둘째도 외모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디자이너 중에 남자가 많은 것도 남자가 시각 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남자는 또한 후각 지향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발달하는 것이 향수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청각 지향적이며, 촉각 지향적인 존재다. 청각 지향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자신에 대해 확신하게 된다. “사랑해. 아무리 봐도 내게 당신 이상은 없어”, “당신이 뭐가 똥똥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당신만한 여자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해”라는 말을 들으면 여자는

행복해지고 삶의 활력을 얻는다. 뻔한 거짓말인 줄 알지라도 행복하다. 세상 모든 여자는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매일 들어도 들을 때마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듯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 특히 여자에게 이 말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쑥스럽다는 이유로 굳이 말로 표현해야 아느냐며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다. 목회자 부부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순이 훨씬 넘으신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께서 “여보 사랑해요”라고 고백했더니 계속 무시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사모님은 “결혼한 지 30여 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고백이에요”라며 남들이 보든 말든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셨다. 그 사모님의 눈물에서 남자들이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여자는 촉각 지향적이기도 하다. 단순히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감싸주거나 손을 꼬옥 잡아주면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내를 자주 꼬옥 안아준다면 아내에게 사랑을 확인시키고 깊은 안정감을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실제로 여자는 촉감을 통해 성적인 만족을 더 많이 얻는다고 한다. 침실에서 얻는 성적인 만족은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0%는 촉감을 통해서 얻는다. 중년에 접어들면 한 번쯤 방황하는 여자들은 어쩌면 잃어버린 80%를 찾아 헤매는지도 모른다.

시각 지향적이고 후각 지향적인 남편, 청각 지향적이고 촉각 지향적인 아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할 때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부가 되어 사랑을 충만하게 나누기를 축복한다.

신앙에세이



박철웅 목사
(장애인사역본부장)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본인 삶의 흔적과 이야기를 남긴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갈 6:17)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2천 년 전에 있었던 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생명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 두드러진 생명의 흔적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난다. 고통과 같이 고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잔치하게 생각한다. 대부분은 고난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고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다가 고난을 맞는다. 그러다 보니 고난이 찾아오면 우선 당황하고, 신앙적인 방향도 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에 고난 때문에 잠깐 넘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다. 예수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네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사 43:2).

내가 구원받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증거는 바다를 건너지 불 속을 걷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

아니라 고난이 없는 삶이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의 흔적이 남지 않는 삶이다.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 생명의 진한 흔적이 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고난의 시기에 기록됐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잊지 않았던 비밀은 ‘구원의 감격’이다. 구원의 감격이 예배의 감격이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변하지 않는 첫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원은 기억하지만, 감격은 쉽게 잊어버린다.

며칠 전 책을 읽다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느끼고 눈이 번쩍 뜨인 적이 있다. 그 책 저자는 2008년 이스라엘을 방문해 빌라도의 법정과 바리새가 있던 감옥의 거리를 조사했다고 한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옥에 있는 바리새가 빌라도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지가 궁금했다고 한다. 법정과 감옥 사이는 말이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가 아님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

태복음 27장 21절부터 23절을 감옥에 있는 바리새의 입장에서 다시 읽었다. 바리새는 자신이 받을 벌이 무기징역인지, 사형인지, 아니면 풀려날 것인지 궁금했을 것이다. 그런데 군중들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감옥으로 걸어오는 로마 병정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바리새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 로마 병정이 이렇게 말한다.

“바리새, 집에 가라! 네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었으니 너는 자유의 몸이다.”

교정시설 관계자 이야기를 들으면 사형 집행관이 오면 대부분의 죄수들이 공포에 휩싸여 바지에 오줌을 지린다고 한다. 그렇게 두려운 것이다. 그렇게 공포에 질렸던 바리새가 예수 때문에 감옥 문을 나왔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다. 이 구원이 감격이 나에게도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의무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매임을 통해서도 복음이 더욱 증거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택지 못한 동기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셋째, 바울에게 경쟁심과 시기심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선택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15~18절).

어떤 이들은 선택지 못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이들은 일부 가식과 시기,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저들의 마음속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을지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기뻐하겠다”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동기는 언제나 미화시키고 포장하고 감춥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는 언제나 크게 보이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동기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살피고, 정직하게 나아가지만, 다른 사람의 동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기뻐하겠다는 것이 그의 영적 태도입니다.

한 침례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부천온누리교회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 일을 제가 했습니다. 당시 부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 있던 교회가 부천온누리교회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어느 중형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가 온누리교회로 전환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옮겨 갈까 봐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전보다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도들을 더 열심히 돌보게 되면서 교회가 더욱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분명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주변 교회들이 모두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선택지 못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의 복음전파의 의무가 어떻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자기만족의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매임, 억울함, 연약함, 불안정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역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자신의 매인 환경을 통해서도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경, 좋은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불행처럼 보이는 일, 우리의 발목을 잡는 때에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택지 못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선택지 못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복음전파의 문이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팬데믹을 통해서도 복음전파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의무가 짐이나 부담,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온누리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선택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매인 것과 같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억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한 상황일지라도 기뻐하며

모든 삶의 의무를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명하신 그 부르심 앞에

의무를 다하는 교회가 되고, 그 의무가 곧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그 아름다운 사랑 나눔, ‘나눔장터’



김광하 장로
(서빙고나눔장터사역)

나눔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웃을 위해 쓰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쓰지 않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나눔이다. 사람들이 나눔 사랑으로 힘든 이웃들이 기뻐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 아름다운 나눔의 중심에 사회선교본부 ‘나눔장터’가 있다.

1988년은 국가적으로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된 매우 뜻깊은 해다. 온누리교회가 나눔장터를 시작한 기원 해이기도 하다. 1988년 2월故 하용조 목사님을 모시고 나눔장터 창립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나눔장터가 3월 15일 개장해서 33년 동안 매주 주일 쉬지 않고 지금까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 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4~47).

나눔장터에서는 사도행전 바로 그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도 간에 유무상통(有無相通)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함(融合)하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나눔장터 매장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관 지하 1층 식당 옆에 있다. 매주 주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버리기 아까운 의류, 책, 그릇 등 생활용품이 기증받아서 매장에 진열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저렴하게 구매한다. 판매금을 모아 선교사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후원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농어촌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주변 불

우 이웃이나 소외된 계층을 돕는데 귀하게 쓰고 있다. 나눔장터의 도움으로 선교지에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이 조금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한 농어촌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나눔장터에서 일년에 약 30여 군데(개인 및 단체)를 후원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성도들의 매장 방문이 줄면서 10군데 정도만 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나눔장터는 1년 내내 쉬지 않는다. 이 귀한 사역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대부분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들이 많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더 많은 성도들이 나눔장터를 섬겨주

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봉사자들이 섬겨준다면 나눔장터가 더욱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이다. 헌신한 만큼 커다란 보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꾸준히 의류, 책, 그릇 등 생활용품을 기증해 주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사를 전한다. 깨끗하게 세탁해서 정성껏 포장해 온 옷을 기증받을 때면 마음이 몽클할 정도로 감동이 밀려온다. 어떤 성도님은 아주 좋은 물건을 내놓는다.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서 더 많은 수익금으로 더 많이 돕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라벨이나 네임택도 제거하지 않은 신제품을 기증하는 분도 있다. 안타까운 기증 사례도 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건들을 대량 정리하며 기증하는 경우다. 기증받으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도 나눔장터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잘 담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 나눔을 계속할 것이다. 나눔장터에 더 많은 생활용품을 기증해 줬으면 좋겠다.

나눔장터 매장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역이 확장되어서 캠퍼스에서도 나눔장터를 개장하는 것이 새해 소망이고 비전이다. 나눔장터를 통해서 온누리교회 사회선교가 더욱 확장되고, 그 아름다운 사랑 나눔 운동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다.

문의: 02-3215-3434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삼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산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원로 589 •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3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갑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현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안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마을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마을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사부 • 엘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창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8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를랜드 유현록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a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686-008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DAIA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	--	--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삼준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해영 신동식 서경남
이준호 도육환

◆부목사(전임)

감미향 강지영 고범석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경
김병조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중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태안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대 럽민홍 문영재 문장일
박시현 박성애 박성업 박주원
박성현 박세웅 박천중 박철웅
박영준 배광삼 백인규 반대섭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원석 스티브 안사무엘 앤드류김
양성민 양재철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수열 유영준 유승준
유진아 윤경숙 윤석원 윤원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서진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민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현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찬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보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최대훈 최성규
최성민 최용준 최혁중 최정훈
한은선 한희원 한홍희 홍기완
하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승겸 김은재 김한국 신현민
송동주 오현교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주하늘 진선미 최종현
하성희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태판

◆협동목사

김도일 류보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도 김종영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재주 김대주
김혜경 네트과 뉴이엔 김대우
마주마눔 민현식 박씨마 김대우
비 켈 성라베를 사기르 월라업
이성광 이세영 이진아 윤준석
윤치연 전 진 제인양 최시현
최일관 최정현 추대식

◆전도사(파트)

강하람 강현구 권예람 김동규
김반석 김세미 김세환 김수영
김영신 김은하 김의연 김주영
김정무 김경호 김지선 김진성
김진희 김태광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민근홍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원 박새미
박영규 박영우 박예슬 박유진
박지수 박정우 박찬양 박태훈
방성주 배명지 백요한 서예찬
서영진 서영철 송유진 송선애
송우형 송예찬 송수영 신기환
신대종 신새벽 신주용 양현모
여현구 오국현 오성광 오태경
오현교 우승민 우진실 유건민
유석현 유성하 유요한 유호동
윤석무 윤신철 윤태정 윤효정
이병희 이민규 이민희 이사무엘
이상은 이선영 이송희 이시하라
노리코 이신숙 이신임 이아르파
이엘렌 이요한 이웅민 이진기
이진수 이진희 이주원 이찬양
이태호 이형목 이휘영 임광명
임노완 임동현 임승아 임진숙
임정민 장광석 장사라 장요셉
장요한 장지훈 장상원 장연영
장준혁 정애스터 정연상 정예은
제영민 조민희 조은광 지수정
진성희 진유석 최규중 최은정
최휘준 최원희 한영철 한용태
하영은 하정현 황연신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익선 강인지
강찬석 구재영 권도원 권득한
권원석 권용성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중 김명철
김상섭 김석민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민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일 김영수

김 완 김원규 김이근 김인하 김장철
김종건 김종승 김종수 김하중
김학파 김현철 나상권 노재환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철실 문영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용대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대성 배 문 배종수
배남인 배승용 배호현 배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정희
성창섭 송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창대 송유신 송일석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주
심준보 안국영 안성원 안용태
안종민 안태환 양유식 양주환
양재진 양태진 양성원 양준방
원우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윤기웅 윤성일 유의준 윤영성
윤영우 윤형주 이강범 이진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웅경
이용하 이우근 이웅대 이정도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도영 정병국 정보원
정승준 정영일 정용화 정재탁
정준혁 정희태 조구상 조성식
정수업 정진하 정파중 정희원
조창진 주우일 주용일 차승원
차준주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석 최창규 최정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곡 한양기
한갑수 한규중 한덕숙 한희희
한종대 한형식 함기명 함대표
하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대표
홍바늘 홍종철 황영록 황용우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인희 강은철 강장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미 고영주 광병철
곽진석 곽희준 권순형 권오습
권오영 권용환 금재중 김경돈

김관식 김기영 김두진 김명세
김동인 김만순 김명태 김명세
김병현 김병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국 김성집 김성철
김선호 김성규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신원 김연상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옥
김영환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기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경현 김경환 김중환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현중 김현석 김희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옥
남병현 남상길 남상규 남윤창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라성원 류기범 명영찬 문상찬
문영기 문현구 문민기 박구병
박병민 박흥국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국 박명률 박성규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종현
박지수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국 박흥선 방진중
배기영 배승호 박종신 박종욱

◆명예장로

강승모 박동순 박찬구 양원명
김승수 김복순 김복순 김복순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희상
정국룡 정영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진 지성한 채수상 최창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경중 김 준
남영태 류수광 권태환 박지인
박영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근
이영희 이영희 정지식 주지수 최대하
최원호 최홍훈 최규명 함지연
황지연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혜준 김형준 김희정 김지형
김혜정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근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현호 오지훈 유은미 윤은희
유지현 이미선 이연희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이혜정 임진순 조익현 전병근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정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희연 최홍익

이해달 임광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정문석 장선철 장정열 장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병호
정문규 정상기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호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재범 정진호 정대경 정하영
재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원
조성진 조성환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규
차준한 최대성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영재 최홍수
최주환 최희기 하주연 한배진
최호림 최정기 하주연 한배진
한복구 한상규 한왕석 한창격
한중희 한희만 정응화 한정철
허 경 허광규 허복남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남
홍의택 홍정표 홍종선 홍해남
황병원 황상훈 황성룡 황윤일

◆명예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경중 김 준
남영태 류수광 권태환 박지인
박영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근
이영희 이영희 정지식 주지수 최대하
최원호 최홍훈 최규명 함지연
황지연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혜준 김형준 김희정 김지형
김혜정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근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현호 오지훈 유은미 윤은희
유지현 이미선 이연희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이혜정 임진순 조익현 전병근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정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희연 최홍익

이한규 이병수 이삼준 임정열
이영수 임호열 임희창 장 광
김보름 김선혜 김은실 김지은
김영찬 김인영 김정국 김현정
김진수 김찬희 김희정 김희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슬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요셉 박윤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민 신신호 신은혜
안소라 안지연 안희준 안희준
오주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정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희 천은진
최영규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반주자

강영우 강영리 강기아 김병성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병성
김보름 김선혜 김은실 김지은
김영찬 김인영 김정국 김현정
김진수 김찬희 김희정 김희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슬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요셉 박윤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민 신신호 신은혜
안소라 안지연 안희준 안희준
오주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정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희 천은진
최영규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반주자

강영우 강영리 강기아 김병성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병성
김보름 김선혜 김은실 김지은
김영찬 김인영 김정국 김현정
김진수 김찬희 김희정 김희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슬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요셉 박윤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민 신신호 신은혜
안소라 안지연 안희준 안희준
오주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정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희 천은진
최영규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반주자

강영우 강영리 강기아 김병성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병성
김보름 김선혜 김은실 김지은
김영찬 김인영 김정국 김현정
김진수 김찬희 김희정 김희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슬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요셉 박윤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민 신신호 신은혜
안소라 안지연 안희준 안희준
오주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정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희 천은진
최영규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고은아 강성호 강은주 김건우
김성현 김인혜 김영봉 김정은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미은
박승홍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현욱 배윤희 사재욱 설상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연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지영 이재경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지지영 정성진 정은숙 정인교
정학기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하재윤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연 핸슨 Amos Lee Chris
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essica Yi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운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시안 김준영 김현중 남 영
서민택 윤영오 이정기 임병욱
정길안

◆시무장로

고성환 권우중 김재동 박호택
성한재 손정래 신술문 신중수
여훈필 우승호 유광민 이관표
이광철 이문호 이상현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코다이라노히로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엄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병훈 김연수
김종수 윤창근 윤환돈 임현식
김정현 최태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좌절 김진용 김홍규 남병호
박민규 박선원 박승람 박승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엄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정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결혼

1월 15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고 송양규, 구영자(서울성산교회 권사))의 아들
송호은(온누리교회)
김성진, 김재숙(광림교회 집사, 집사)의 딸
김정연(온누리교회)

1월 15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길병준, 명안자의 아들 길성재(온누리교회)
고 오양식, 윤영심(온누리교회)의 딸
오경선(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중,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한정 간사(010-6209-3667)

군포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
자 모집
내용: 중장기쉼터 청소년의 성장, 자립 위한 후원과 자원
봉사 요청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마을수호봉사단 모집
내용: 프로그램 보조, 홍보 콘텐츠 제작, 방역 활동 등 자원
봉사자 모집
문의: 강유림 사회복지사(02-3474-6080)

서초50플러스센터 시.아.다 공모전 개최
내용: 사소하지만 아득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15분 영상
으로 제출
문의: 선조원PM(070-4304-6913)

서초구립노트니우쉼터 재능나눔 강의봉사단 모집
내용: 전문지식을 가진 은퇴 신중년(50세이상)의 재능 나
눔 강의 봉사 진행
분야: 인문/교양, 독서/글쓰기, 법률/경제, 문화/예술 등
문의: 김유진 사회복지사(02-6953-7134)

제정

십일조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보목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하우스동인접)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2022년 1월 1-2일, 8-9일
선교헌금작정

열방에 소금과 빛으로



선교헌금 작정 방법

1. 현장 작정 (2022년 1월 1-2일, 8-9일) :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작정서 작성
2. 온라인 작정(상시 작정 가능) :
선교헌금작정 QR코드
3. 전화 작정(상시 작정 가능) 02-3215-3616
※ QR코드와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정 가능합니다.

선교헌금작정



선교헌금 작정서 작성 방법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해 주세요.

1. 자동이체 (CMS) :
 - ① 소속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 ②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 <신규 작성란> 작성
 - ③ 이미 작성하고 계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 <변경 작성란> 작성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 표시
2. 현금봉투 방식 :
 - 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정금액 작성
 - ② 현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 선교헌금 문의 02) 3215-3616